'도서관의 탄생' 스튜어트 A.P. 머레이 지음

"위대한 도서관은 건설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도서관일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작가인 보르헤스는 도서관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런 그가 도서관을 천국의 이미지로 표상했다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나 책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일 년에 고작 서너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교양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은 '가깝고도 먼'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 또한 공감한다. 도서관은 상상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그러한 관점에 따라 도서관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의미있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공간이 축적하고 소장하고 있는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문명의 기록과 인간의 역사를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의 탄생'이 출간되었다. 책은 도서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최초의 도서관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걸쳐 있는 농경지대로 추정된다. 시리아 남부에 있는 에블라 유적에서 발굴된 도서관이 가장 오래되었고 이때 글쓰기라는 개념도 시작된 것으로 본다.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궁전에 큰 규모의 도서관을 소유했으며 그의 묘지에서는 사서로 알려진 아멘 엠 한트라는 전문가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저자인 스튜어트 A.P. 머레이는 "고대에 최고 필경사(전문서기와 필기 연습생)는 귀족과 정부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의 서명을 족보에 올릴 수 있는 지위도 부여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쓴 단어는 조상, 미래, 신들과 연결되는 매체로까지 추앙받았을 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는 마술에 가까운 행위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 시대에 많은 도서관은 불안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3세기 무렵의 페르시아의 글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서적들로 가득한 큰 도서관이 있는 페르시아 수도를 약탈하고 문서 보관소를 불태워 버렸다.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부흥하면서는 많은 장서들이 불경한 이교도의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파괴되었다.

중세 이후 책읽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점과 대학이 등장했다. 14세기와 15세기는 문예부흥기라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예술·철학·건축·음악 과학과 관련한 책이 인기를 끌었다.

이후 구텐베르크가 창안한 이동식 활자가 등장, 책의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일반 대중들도 학문에 대한 지적 욕구에 따라 장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저자는 문명사에서 도서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한다. 흔히 "한 국가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도서관은 인류가 창안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자 정신의 보고이다.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내부.

저자의 지적 편력을 따라 읽다보면 불현듯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존 힐 버튼의 말이 떠오른다. "위대한 도서관은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다"는.

〈예경·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시에 담긴 정취… 추억과 함께 자연을 본다

'시냇가로 물러나 사는 즐거움'

김태완 지음

'유십구에게 묻는다/ 새로 막걸리 걸러 놓고/ 질그릇 작은 화로 피워 놓았네/ 오늘 저녁 눈이 올 듯한데/ 와서 한잔하지 않으려는가?' 〈백거이 '친구여, 와서 한잔하세'〉

이 시는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가 쓴 시다. 겨울 눈 내리는 저녁, 좋은 친구와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을 담고 있다. 화자의 내면엔 금방이라도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올 것 같은 기대감과 쉬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다.

김태완의 '시냇가로 물러나 사는 즐거움'은 자연을 소재로 한 한시(漢詩) 54수를 골라 저자의 추억담과 함께 소개한다. 이태백, 두보, 최치원, 김시습의 빼어난 시는 난해한 관념이나 공허한 언어가 아닌 삶의 냄새가 묻어나는 정겨운 언어로 재현된다. 자연을 벗 삼아 노래한 옛 문인들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미덕은 한시를 고리타분한 고전문학보다 우리 삶과 정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살아있는 '문화'로 만나게 한다. 고향의 소중함을 잃고 사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끔은 왔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고 나지막이 속삭인다. 〈호미·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격이 다른 조선 최대 행사 왕실 혼례식

'왕실의 혼례식 풍경'

신병주 외 지음

혼례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가운데 하나다. 배필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혼례 그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삼이사들의 혼례도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각별한데, 하물며 왕실의 혼례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할 것이다. 오랫동안 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던 왕실의 혼례를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신병주 외 세 명의 저자가 쓴 '왕실의 혼례식 풍경'은 조선 왕실 혼례식의 전모를 충실히 보여준다. 왕실의 혼례는 두 남녀의 결합보다는 다분히 후손을 생산해 왕통을 잇는다는 정치적·역사적 의미가 컸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혼례식은 왕, 왕세자, 왕세손 등 지위에 따라 격을 달리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왕이 직접 별궁으로 나가 왕비를 모셔오는 '친영(親迎)의식'이 정착되었고, 영조 때는 국가적 이념을 혼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가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의례서를 토대로 최고의 예가 요구되었고, 전 과정이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되었다.

무엇보다 혼례의식의 첫 단계인 왕비를 뽑는 간택 부분은 백성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혼사에는 대개 3차례의 간택이 실시되었는데 초간택에서 6명, 재간택에서 3명, 삼간택에서 1명의 후보를 선발하였다. 기준은 가문, 부덕, 용모 등이 중시되었다.

간택의 중요한 기준이던 가문과 용모는 오늘날 보편적인 혼례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은 왕실문화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통해 은연중 오늘날의 혼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묻고 있다. 〈돌베개·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개인 넘어 자아의 관점으로

'르네상스기…'

임병철 지음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는 유럽의 문예부흥을 일컫는다.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든 문화운동으로 갈음하든 르네상스는 유럽적 자기정체성과 맥을 같이한다.

임병철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들의 자아와 타자를 찾아서' 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문화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지식인, 상인, 여행가들의 저서와 서간을 바탕으로 '개인'보다는 '자아'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르네상스인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에도 초점을 맞춘다. 르네상스가 서유럽 정체성의 가늠자라기보다 고전 전통의 계승을 둘러싸고 세계가 각축을 벌였다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 인간들은 모두 균질하지 않았다는 결론,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푸른 역사·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서고금 걸작 200선 한눈에

'세상의 모든 고전'

반덕진 엮음

익숙하다고 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명제에 가장 잘 들어맞는 예가 바로 '고전'이다. 너무나 귀에 익은 나머지 읽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걸작 고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고전'은 고전에 다가서고 싶지만 두툼한 분량과 어마어마한 깊이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고전 초보'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1993년 책의 해를 맞아 서울대가 동서고금의 걸작 고전을 엄선해 발표한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을 크게 동양과 서양, 문학과 사상으로 분류해 4권으로 기획됐다.

그 첫 권 '동양문학편'은 고려시대의 한문설화집 '수이전'에서 이슬람의 환상적인 설화집 '천일야화' 등 동양의 감성이 낳은 최고의 문학작품 45편을 수록했다. '홍길동전', '춘향전', 'ㅇQ정전' 등 친숙한 제목의 책들도 잘 정리돼 있다.

〈가람기획·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지혜롭고 도전적인 그리스인을 주목하라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

구본형 지음

로마인이 서양의 법과 제도를 발전시켰다면 지혜로운 고대 그리스인은 서양문명의 철학을 완성시켰다. 그리스인이 철학을 꽃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신과 인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경영사상가인 구본형이 고대 그리스신화 속 영웅과 그리스인의 모험, 도전, 갈등, 사랑이야기를 담은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신화가 된 영웅들의 모험과 변신, 그리고 사랑'을 펴냈다.

저자는 지난 5년간 그리스 유적을 수차례 답사하면서 신화 속에 가려진 그리스인의 역사에 주목했다. 이들의 역사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들의 모험과 도전정신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책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상징인 크레타의 미노스 왕과 미케네의 페르세우스를 시작으로 문명의 전성기인 아테네의 테세우스와 테베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트로이전쟁과 로마 건국까지의 과정을 200여장의 도판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주제마다 영웅들에 대한 팁과 '시인은 말한다'라는 꼭지를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 영웅들에서 발견한 변화와 발전 동력을 깨닫게 된다. 저자가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이다.

〈생각정원·2만2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착각의 경제학=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의 경제 예측조차 불가능하고 믿기 어려운 시대. 오히려 언론에서 쏟아내는 거짓 정보들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혼재하는 2013년, 지금의 복잡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중산층을 위한 생존대책을 제시한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탐욕의 도둑들=글로벌 금융 붕괴의 역사를 한편의 소설처럼 풀어낸 리얼스토리. 25년간 월가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금융위기를 직접 목격한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심과 오만이 불러온 조작과 부정부패의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펼치는 음모와 암투, 사기와 배신을 통해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에 대한 예리한 성찰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저자는 중국의 사대부, 일본의 사무라이, 한국의 양반을 비교하고, 명·청대의 어린도책, 도쿠가와시대의 검지장, 조선의 양안을 비교하는 등 한·중·일 역사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는다. 저자는 서구적 근대와 달리 동아시아의 근대는 중국은 명대에, 한국은 조선시대 중기인 16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따라서 근대사 연구는 개항기 때부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머북스·2만3000원〉

▲스토리로 리드하라=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명쾌하면서도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비즈니스 전반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리더십 과제를 21가지로 분류하고, 그 과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 100여개를 실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고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툴은 스토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IGM북스·2만2000원〉

▲빛이 사라지는 시간=독일이 통일되었던 1989년을 전후로 50년에 걸쳐 펼쳐지는 한 가족, 네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향을 꿈꿨으나 국가보안부의 철저한 사회감시 체제가 초래한 고립과 단절로 허무한 최후를 맞은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모순과 비극을 한 가족의 이야기에 재현했다.

〈문예중앙·1만4000원〉

▲착한수학=수학을 잡고서라도 가르쳐야 할지, 학원을 보내야 할지…. 수학 공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아이와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초등 수학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을 충실히 다져놓아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사교육 대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시하고 아이와 충돌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비아북·1만4000원〉

어린이 책꽂이

▲눈='볼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시각이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책을 통해 눈은 우리가 받은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꽃과도 같고, 세상이라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라는 것을 알려준다. 시각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다른 감각들도 일깨운다.

〈창비·1만6000원〉

▲누구세요?=고철로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들고 다시 그 주인공들을 찍은 사진에 그림을 그려 넣어 만든 작품. 매 장면이 이어진 듯 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철로 만든 동화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묻는다. 열린 이야기 구조로 어린이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그림책이다. 〈북극곰·1만5000원〉

▲초등학교 입학 준비 30일 만에 끝내기=전·현직 교장선생님들이 집필한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이다. 예비 초등학생의 자신감 있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하루 15분 한 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국어와 수학, 생활, 가치로 나뉘어져 있다.

〈키움·권당 1만1000원〉

▲나무는 숲을 기억해요=나무꾼이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자라 근사한 탁자로 태어난다.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간 작은 탁자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행복과 슬픔과 함께하며 나이를 먹어간다. 나무가 선물한 작은 탁자는 사람들 속에 묻혀 추억과 향기를 느끼며 새로운 싹을 틔우며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된다.

〈노란상상·1만원〉

▲꼼꼼 의사와 덜렁 조수의 수상한 병원=무슨 일이든 침착하고 정확하게 차근차근 처리하는 쥐 의사와 하루 종일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쥐 조수의 아슬아슬하면서도 유쾌한 병원 이야기. 하루 종일 실수 연발인 조수는 의사의 지시와는 다른 주사와 약을 동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만다. 화가 난 의사는 조수를 혼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다.

〈파란자전거·9800원〉